

하자보수 불량, 층간소음 심각... 중장기 로드맵 절실

서울시의회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공공주택 거주자 1042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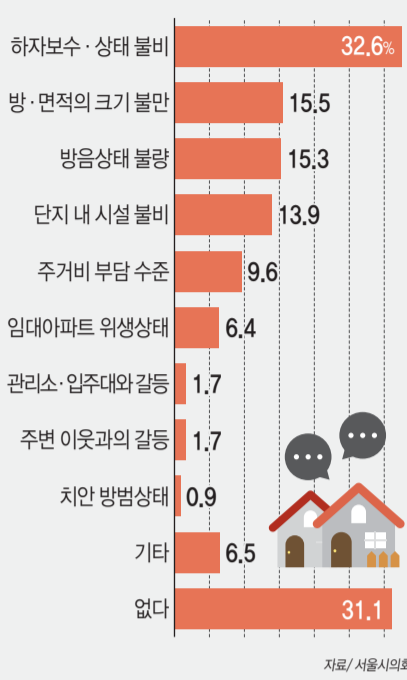
“층간소음 문제 갈수록 심각해져 사건발생 빈번... 주민생명 위협”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서울 시민들이 ‘하자보수와 보수상태 불량’, ‘층간소음’ 등을 거주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가운데 임대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하자보수 및 보수상태 불량, 층간소음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 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영구임대주택(315명), 공공임대주택(139명), 재개발임대주택(126명), 행복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



주택(91명), 주거환경임대주택(80명), 국민임대주택(60명), 장기전세주택(52명), 다가구(36명), 도시형생활주택

(33명), 전세임대주택(30명), 기타임대주택(80명) 등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04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현 거주지의 문제점으로 하자보수 및 보수상태 불량이 32.6%로 1위를 차지했다. 방의 수·전용면적 크기 불만(15.5%), 층간소음 등 아파트 방음상태 불량(15.3%), 단지 내 근린생활 시설 불량(13.9%), 주거비 부담(9.6%)이 뒤를 이었다.

시의회는 “대부분 임대주택 유형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전체 응답과 유사하지만, ‘층간 소음’을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이 불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35%)이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32.7%), 주거환경임대주택(27.5%), 공공임대주택(23%) 순

이었다.

지난 4월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 안모(42) 씨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과 다투다 본인의 집에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경남 창원에서 조현병 치료 병력이 있는 장모(18) 군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군은 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사는 노인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하면 LH임대주택에서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514건에 달한다.

최경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LH공사의 소극적인 관리와 안일한 대처로 입주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지속

적인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아파트 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아파트 65세대 등 총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0곳 중 9곳인 184세대(96%)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후 확인절차의 부재에 있다는 판단하에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주 52시간제 도입 임금조정 투표

경기 버스노조, 찬성 압도적... ‘파업 초읽기’

15곳 중 8곳 찬성률 평균 96.2%
운행중단 눈앞... 시민불편 예상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중 투표를 마친 8개 업체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투표결과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7개 업체 노조 역시 높은 비중으로 파업에 찬성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운행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동차노조)은 지난 8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8개 업체 노조가 재적조합원 대비 평균 96.2%의 찬성률을 보여 파업이 결의됐다고 9일 밝혔다.

파업을 결의한 8개 업체는 경기상운(하남), 진흥고속(가평), 경남여객(용인), 진명여객(양주), 신성교통(파주), 선진시내(포천), 보영운수(안양), 경기버스(남양주) 등이다.

이들 업체가 운행하는 버스는 총 257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15개 업체 총 운행 대수(589대)의 43%에 해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사용자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가 8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서 노조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당한다.

경기고속(광주), 파주선진(파주), 대원고속(광주), 대원운수(남양주), 경기운수(남양주), 경기여객(구리), 신일여객(파주) 등 나머지 7개 업체의 투표결과는 이날 오후께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각사 노조 측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현행 임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반수 찬성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이 결정될 경우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최종 조정과정을 거친 뒤

오는 15일부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파업 결의가 이뤄진 지역 중에는 지하철 등 광역버스를 대체할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 15개 광역버스업체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찬반투표 대상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을 경영하는 1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324명이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

콘서트 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건립 박차

내년 9월 착공, 2024년 정식개장

서울시가 콘서트 전문공연장인 서울아레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아레나는 창동역 인근 약 5만㎡ 부지에 들어서는 1만8000여명 규모의 국내 최대 실내 공연장이다. 대상지(연면적 24만3578㎡)에는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해 중형공연장, 대중음악지원시설, 영화관 등을 갖춘 케이팝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된다.

시는 지난 2015년 2월 서울아레나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가칭)서울아레나(주)가 최초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제안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3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와 4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사업



서울아레나 조감도. /서울시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공고기간 내에 시에 제출하면 된다. 1단계(사전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기한은 9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2단계(기술부문, 가격 및 공익성 부문) 서류는 9월 6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시는 9월까지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9월에 착공, 2023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서울아레나는 2024년 1월 정식 개장한다. /김현정 기자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서울 4개기관 맞손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하철 및 지하도 상가 환기공조시설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책 수립 공동연구 추진 ▲목적형 미세먼지 저감 적정기술 도출, 대기질 측정·분석 및 미세먼지 실태조사 ▲환기공조시설 집진장치 시범시공 및 효과분석 ▲미세먼지 관리기준 신설·강화 및 지침 마련 ▲기술세미나,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 상호 교류 등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하철내 실내 공기질 개선용 환기공조시설을 보완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또 실내·외기 양방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경제적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이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약 800만명의 서울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의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질을 개선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 농기원, 다육식물 ‘세덤’ 2종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다육식물 ‘세덤’의 신종 품종 ‘루비퍼피’와 ‘루비파인’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세덤 신종 품종 ‘루비퍼피(Ruby Puppy)’는 도란형의 잎에 백본이 발생하고 잎끝과 가장자리에 적갈색이 착색돼 관상 가치가 높다. 이 무늬색은 햇빛을 많이 받고 일교차가 적당한 봄, 가을철에

더욱 짙게 물들어 다육식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다. ‘루비파인(Ruby Pine)’은 황녹색 잎 끝은 회적색으로 물들고, 잎이 짧고 줄기가 옆으로 늘어지는 콤팩트한 형태로 올해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다육식물 육종연구기관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작목개발 및 소비



경기도 농기원이 개발한 인기다육식물 루비파인(왼쪽)과 루비퍼피. /경기도

시장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세덤 신종 품종 육종연구를 수행, 루비퍼피와 루비파인 외 루비틴트 등 3종 품종을 개발했다. /경기=김승열 기자